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2년도 제9호

교육부

코로나로 저체력 학생 증가... 학교체육 활성화에 129억 지원

권형진 뉴스1 기자

‘공부도 잘하는’ 학생 선수 기른다... 중, 고 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 높여

김기중 서울신문 기자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IPC위원장 “‘올림픽 휴전’ 지켜져야... 변화는 스포츠에서 시작”

장보인 연합뉴스 기자

여자프로농구

향년 22세... 뇌출혈로 입원치료 중 숨진 여자농구 스포츠 스타

이범희 위키트리 기자

우크라이나

우크라 스포츠 선수 잇따라 戰死 ... “그래도 싸우겠다”

장민석 조선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2022.02.28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

‘감사드립니다’

회원님들의 관심 덕분에

지난 주 체육시민연대 정기총회를 잘 마쳤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정의를 실현되는 스포츠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로 저체력 학생 증가... 학교체육 활성화에 129억 지원

목표

- 운동하는 모든 학생
- 신체활동 생활화를 통한 건강체력 증진
- 자기주도적으로 진로를 개척하는 학생선수

학교체육 운영 내실화

- 미래형 체육수업 운영
- 건강체력증진 활동 강화
- 생존수영교육 운영 개선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

-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대면·비대면 운영 확대
- 학교-지역연계 운영 기반 마련
- 학교-공공스포츠클럽 연계 운영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

- 학습권 보호제도 기반 강화
- 맞춤형 진로지도 지원 확대
- 인권보호 및 학폭 예방 강화

교원·지도자 전문역량 강화

- 교원의 체육교육 전문역량 지원
- 학교운동부지도자 전문역량 함양 지원

학교체육교육 거버넌스 및 지원체계 구축 운영

학교체육 통합 거버넌스 구축, 학교체육교육 지원체계 기반 마련, 학교체육교육 대국민 인식제고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체력이 저하되는 것에 대응해 정부가 올해 학교 체육교육 활성화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해 심각한 학교폭력 가해행위를 하거나 물의를 일으킨 학생선수는 올해부터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한다.

교육부는 3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줄어든 신체활동과 건강체력 회복을 위해 5개 중점과제 39개 세부과제에 특별교부금 129억원을 지원한다.

세부과제별로는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체계화 및 질 제고'에 가장 많은 92억4900만원을 지원하고 '학교체육교육 운영 내실화'에 33억4600만원, '자기주도적 미래형 체육인재 육성'에 2억96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 이후 저체력 학생 비율 12.2→17.7%로 늘어

코로나19가 장기화로 체육수업을 제대로 못 하고 신체활동도 줄면서 저체력 학생 비율도 증가 추세다. 2019년 12.2%였던 저체력 학생 비율이 2020년 17.6%로 늘었다가 2021년에는 17.7%로 더 증가했다.

언제 어디서나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온·오프라인 미래형 체육수업과 맞춤형 신체활동 지원을 강화한다. 온·오프라인 블렌디드 체육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까지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한다.

학생의 수행을 분석해 동작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동작 분석 앱'을 개발해 11월부터 수업에 활용한다. 또 학교급별, 체력급수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개발해 학생 수준별 신체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 장 계속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를 위해 운영 모형과 프로그램을 다양화한다. 학교-지역연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협력 모델을 개발하고 공공스포츠클럽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지역 연계 학교스포츠클럽 기반을 마련한다. 학교스포츠클럽과 대면·비대면 리그·축전과 연계도 강화한다.

학생선수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단계부터 학습결손을 지원한다. 중·고교 학생선수의 학습지원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이-스쿨(e-school)'을 초등학교 학생선수로 확대해 올해부터 2024년까지 연차적으로 학교급·수준별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학생선수에게 맞춤형 진로 지원도 확대한다. 온·오프라인으로 찾아가는 '진로멘토상담제'를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체육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체육진로 중심 교육과정을 운영해 학생선수에게 다양한 진로개척 기회를 제공한다. 올해 시범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전국 15개 체고뿐 아니라 학교운동부를 운영하는 학교로 확대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와 운동부 지도자 징계 강화

학교운동부 폭력을 근절하고 학생선수 인권보호를 위해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강화된다. 지난해 11월부터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에서 1년까지 대회 참가와 선수 등록을 제한하고 있다. 성추행·성희롱으로 퇴학 조치된 학생선수는 5년, 성폭행으로 퇴학 조치된 학생선수는 10년간 선수 등록과 대회 참가를 할 수 없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전학(8호)이나 퇴학(9호) 조치를 받은 학생선수는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중·고입 체육특기자 선발 규정'에 신설한다. 학교폭력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1호(서면사과)부터 7호(학급교체)까지에 대한 제한 기준은 시·도 교육청이 자체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7~8월에 실시했던 학생선수 폭력 실태조사는 올해부터 5~6월에 실시해 7월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조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실태조사 문항을 정교화한다. 학교운동장 사각지대, 체육관, 지도자실, 기숙사 등 전체 학교 체육시설의 37.6%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도 올해는 설치율을 45%로 확대하고 내년에는 55%로 높일 계획이다.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에 대한 징계도 강화한다. 현재 7개 시·도에서 적용 중인 '학교운동부 지도자 징계양정기준'이 올해 전국 17개 모든 시·도로 확대된다. 운동부 지도자의 폭력 사안이 일관되고 엄정하게 처리되도록 하기 위해서다.

성폭행을 저지른 지도자는 무조건 해고한다. 성희롱을 하거나 성폭력을 방조·묵인했을 때도 비위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일 경우 해고된다. 본인의 폭력 행위뿐 폭력행위를 방조·묵인해도 비위 정도가 심할 때는 최소 감봉에서 최대 해고 징계를 받는다.

‘공부도 잘하는’ 학생 선수 기른다... 중, 고 체육특기자 학생부 반영 높아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학생부의 최저 반영 비율이 올라가고, 학생선수의 대회·훈련을 이유로 한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가 줄어든다.

교육부는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2022년 학교체육 활성화 추진 기본계획’을 확정·발표했다. 5개 중점과제와 39개 세부과제 추진을 위해 특별교부금 약 129억원을 편성했다.

이번 계획은 학생선수의 학습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학교체육진흥법 시행규칙상 학생선수들이 도달해야 하는 최저학력제 교과와 성적 기준을 연구해 올 하반기쯤 현실에 맞게 손본다. 최저학력제 미도달 학생선수의 참가제한 대회 규모와 범위를 규정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중·고입 체육특기자 전형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30% 안팎인 학생부 최저 반영비율을 40% 이상으로 상향 조정하거나 최저학력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학생선수의 대회·훈련 참가 출석인정 결석 허용일수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지난해는 초등학생은 10일, 중학생은 15일, 고교생은 30일이었지만, 올해에는 각각, 5, 12, 25일로 줄어든다.

학생선수가 정규 수업을 못 들을 때 학습을 지원하는 e스쿨 초등학생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중·고등학생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현재 e스쿨은 중학교 72과목, 고등학교 124과목이 개설됐으며, 학생선수가 컴퓨터나 태블릿PC, 스마트폰으로 배울 수 있다. 수업 결손 2시간에 e스쿨 1시간 수업을 의무화한다.

일반 학생들의 체육교과 교육을 강화하고자 ‘학교체육교육 종합포털’을 구축해 학교 체육 수업 자료, 스포츠클럽 운영자료, 교원·지도자 연수 자료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를 체계적으로 지원·관리한다. 올해 상반기에 플랫폼을 구축해 하반기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초등 1~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을 생존·구조·영법 중심의 실기교육에서 생존기능 중심의 이론·실기 교육(10시간 이상)으로 강화한다. 실기 교육은 교실, 체육관 등에서 부력과 체온유지를 체험할 수 있는 욕조 등 설비를 활용하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수영장을 이용하기 어려우면 교내 이동식 생존수영교실 운영을 권장한다.

단위 학교 외에도 지역거점형 학교스포츠클럽을 운영하며, 학교스포츠클럽과 대면 전국학교스포츠클럽 축전(11월), 비대면 축전(9월)을 연계·운영해 참여를 활성화한다.

중앙부처·관계기관의 ‘체육정책협의체’ 및 ‘학교체육교육 토론회(포럼)’를 신설하고 정례로 운영한다. 중앙·시도 단위 학교체육 지원단을 운영함으로써 현장성 높은 학교체육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모든 학생들이 다양한 신체활동을 통해 건강체력을 증진하고, 생활 속에서 스포츠를 누리며 즐기는 미래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지속해서 협력·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패럴림픽] IPC 위원장 “올림픽 휴전 지켜져야... 변화는 스포츠에서 시작”

앤드루 파슨스 국제패럴림픽위원회(IPC) 위원장이 2022 베이징동계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 개회식에서 '평화'와 '반전'을 강조했다.

파슨스 IPC 위원장은 4일 오후 8시(현지시간) 중국 베이징의 국립경기장에서 열린 베이징동계패럴림픽 개회식 연설에서 "다양성을 찬양하고 차이를 포용하는 조직의 리더로서,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충격적"이라며 "21세기는 전쟁과 증오가 아닌 대화와 외교의 시대"라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파슨스 위원장은 "올림픽·패럴림픽 기간의 평화를 위한 '올림픽 휴전'은 유엔에서 합의해 채택한 결의안이며, 위반되지 않고 존중되고 지켜져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IPC는 패럴림픽 개막을 하루 앞둔 3일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단의 패럴림픽 출전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일까지만 해도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중립국 선수 자격' 출전을 허용할 계획이었으나, 다른 국가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IPC는 결국 이들의 출전 금지를 결정했다.

우크라이나는 침공으로 인한 혼란 속에서도 선수 20명과 가이드 9명을 이번 대회에 출전시켰다.

우크라이나 선수단은 이날 개회식에서 46개국 중 네 번째로 입장했다.

장내에 우크라이나의 국명이 호명되고 선수들이 국기를 흔들며 무대로 나오자 관중석에선 잠시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파슨스 위원장을 비롯한 일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로 이들을 맞았다.

선수단 입장이 끝난 뒤 연설대에 오른 파슨스 위원장은 "오늘 밤, 저는 평화의 메시지로 시작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IPC는 차별과 증오, 무지와 갈등에서 벗어나 더 낮고 포용적인 세상을 열망한다"며 "이곳 베이징에서는 46개국 패럴림픽 선수들이 서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경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패럴림픽 선수들은 상대방(opponent)이 적(enemy)이 될 필요는 없으며, 연대하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다"며 "세상은 분열이 아닌 나눔의 공간이어야 한다. 변화는 스포츠에서 시작된다. 화합을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 도시, 국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힘줘 말했다.

연설 도중에는 두 주먹을 불끈 쥐어 보이며 "평화(Peace)!"라고 외치기도 했다. 이에 관중석에선 박수와 함성이 터져 나왔다.

4일 개회식으로 막을 올린 베이징 동계패럴림픽은 13일까지 중국 베이징과 옌칭, 장자커우에서 진행된다.

46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6개 종목 78개 세부 종목에서 뜨거운 경쟁을 펼친다.

자료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4179600007?input=1195m>

향년 22세... 뇌출혈로 입원치료 중 숨진 여자농구 스포츠 스타



그 누구보다 농구를 사랑했고
치열한 열정으로 농구와 함께 했던
선가희 선수를 영원히 기억하겠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여자프로농구 KB국민은행 스타즈 소속 선수 선가희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향년 22세다.

KB스타즈는 5일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누구보다 농구를 사랑했고 소중한 꿈과 열정을 가졌던 선가희 선수가 지난 4일 새벽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구단에 따르면 선가희는 지난달 11일 뇌출혈 증상을 보여 당일 응급 수술을 받았고, 이후 최근까지 중환자실에 머물렀다.

이어 KB스타즈는 “자세한 내용을 미리 공유하지 못한 점,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의 처지에서 부디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례 절차도 유족 뜻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며 구단은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라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돼 마음이 아프고 선수들과 스태프 모두 큰 슬픔 속에 애도하고 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라고 말을 마쳤다.

2000년생인 고인은 송의여고 출신으로 2019년 신인 드래프트 2라운드 1순위로 KB스타즈에 입단했다. 2021-2022시즌 7경기에 출전해 평균 0.9점에 1.1리바운드를 기록했다.

우크라이나 스포츠 선수 잇따라 戰死... “그래도 싸우겠다”

예브게니 말리셰프는 2년 전 우크라이나 청소년 대표를 지낸 바이애슬론 유망주였다. 동계 스포츠인 바이애슬론은 크로스컨트리 스키와 사격을 결합한 종목이다. 한때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며 총을 잡았던 그는 총을 들고 러시아의 침공에 맞섰고, 끝내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 바이애슬론 연맹은 최근 “군 복무 중이었던 말리셰프가 하르키우 전투에서 사망했다.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를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밝혔다. 2002년생인 말리셰프는 스무 번째 생일을 두 달 앞두고 세상을 떠나 슬픔을 더했다.

우크라이나의 젊은 축구 선수 두 명도 최근 잇달아 사망했다. 국제축구선수협회(FIFPro)는 “비탈리 사필로(21)와 드미트로 마르티넨코(25)의 가족과 친구, 팀 동료들에게 애도를 표한다”고 밝혔다. 카르파티 리비우의 유스팀 출신인 사필로는 전차 승무원으로 자원입대했다가 지난달 수도 키이우(키예프) 근교에서 벌어진 러시아와 교전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르티넨코는 키이우 인근 자택에서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아 목숨을 잃었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에 결사 항전으로 맞서는 상황에서 스포츠 선수들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속속 나서고 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스켈레톤 경기를 마친 뒤 ‘NO WAR IN UKRAINE(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은 안 돼)’이란 종이를 들어 보였던 슬라프 헤라스케비치(23)는 최근 외신 인터뷰에서 “군에서 복무한 경험은 없지만 어떤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키이우로 들어가 도시를 지키겠다”고 말했다.

56세의 축구 감독도 총을 들었다. 유리 베르니두브 감독은 작년 UEFA(유럽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에서 축구 변방 몰도바의 티라스폴 세리프를 이끌고 스페인 명문 클럽 레알 마드리드를 꺾으며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다. 그는 지휘봉을 잠시 내려놓고, 예비군에 합류했다. 남자프로테니스(ATP)투어에서 4차례 우승을 차지한 세르게이 스타코프스키(36)는 “평생 라켓만 잡아왔지만, 총을 들고 온몸을 바쳐 내 나라를 지키겠다”며 예비군에 입대했다.

우크라이나는 수많은 챔피언을 배출한 복싱 강국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복싱 영웅들도 앞다퉈 전장으로 나서고 있다. 바실 로마첸코(34)는 2008·2012 올림픽에서 2연속 금메달을 따낸 세계적인 복서다. 프로로 전향해 3체급을 석권한 그는 고향을 지키기 위해 영토 방위대에 들어갔다. 런던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이자 현 헤비급 통합 챔피언인 올렉산드르 우식(35)도 프로 생활을 잠시 중단하고 우크라이나로 돌아왔다.

헤비급 역대 최강의 복서로 꼽히는 비탈리 클리츠코(51)는 현재 키이우 시장(市長)으로 최전선에서 러시아에 맞서고 있다. 2014년부터 키이우 시장직을 맡은 클리츠코는 동맹국의 더 많은 지지를 호소하며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민주주의를 위해 싸우고 있다”고 말했다. 10년 넘게 형 비탈리와 세계 헤비급을 양분했던 동생 블라디미르 클리츠코(46)도 지난달 일찌감치 예비군에 합류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대전 시민 숙원 서남부스포츠타운 건립 '청신호'

<https://www.cc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57883>

한섬, 스포츠 콘텐츠 회사에 53억 투자... "MZ세대 콘텐츠 개발"

<https://www.yna.co.kr/view/AKR20220307037100003?input=1195m>

경주,동계 스포츠 훈련지로 각광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2030620100732316?utm_source=naver&utm_medium=search#ODKU

광주 '공공스포츠클럽' 활기...지난해 31만9000명 참여

<https://www.news1.kr/articles/?4606830>

고창군, 체육시설 최신화로 공격적 스포츠마케팅

<http://sjbnews.com/news/news.php?number=738342>

'효창' '박봉식' '향원정'...스포츠 역사에 담긴 도시 서울의 모습은?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2203071115001>

[김세훈의 스포츠IN] 스포츠베팅 활성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https://sports.khan.co.kr/sports/sk_index.html?art_id=202203061512023&sec_id=530101&pt=nv

청주시 스포츠 메카 꿈꾼다...각종 국제·전국 체육대회 유치

<http://www.joongdo.co.kr/web/view.php?key=20220306010001062>

국제대회 퇴출된 러시아축구,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항소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663559&plink=ORI&cooper=NAVER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